

##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증진 단기 프로그램 개발\*

조은숙\*\*·김민경\*\*\*·김소영\*\*\*\*·권혜영\*\*\*\*\*

###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실태와 문제점, 개입프로그램 등에 대한 선행연구와 현장전문가들에 대한 면접결과를 기초로 대상의 다양성 고려, 내담자의 현실에 맞춘 단기 프로그램, 현장 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는 난이도, 대상자의 강점 및 역량강화에 초점 두기 등의 프로그램 구성 원리를 정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가족체계론과 강점 관점에 더하여 해결중심치료 및 이야기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상담자 매뉴얼 초안을 개발한 후 피드백 수렴을 통한 수정과정을 거쳤다. 수정프로그램으로 상담실무자 45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프로그램의 현장적용가능성 및 단기적 효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을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프로그램 개발

\* 이 연구는 저자들의 2018년 남북하나재단 연구과제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내용에 기초하여 발전시켰으며, 2019년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논문을 수정 보완하는데 도움을 주신 토론자 및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조은숙(주저자):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다양한 가족의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적 개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grace123@smu.ac.kr

\*\*\* 김민경(공동저자):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신건강, 다문화, 가족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mkm35@nsu.ac.kr

\*\*\*\* 김소영(공동저자): 공주대학교 기술가정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북한이탈주민 가족, 일가족양립,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syoungkim@kongju.ac.kr

\*\*\*\*\* 권혜영(공동저자):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생이며,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catino77@hanmail.net

## I. 서론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족은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재산이며 살아가는 힘과 동기를 부여해 주는 존재(김현아 외, 2012)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탈북과정과 해외체류기간, 그리고 남한 정착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이 경험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각종 트라우마,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는 다중적 어려움에 처해있다(이순형 외, 2009). 이에 이들의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가족관계를 증진하는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성인 및 청소년 등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강숙정 외, 2010; 김나영 외, 2016; 김창대 외, 2014; 김창대 외, 2017; 조하나, 최연실, 2013; 최보영 외, 2012 등) 부부 혹은 부모자녀 등 가족체계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의 개발은 저조한 편이다.

가족체계론에 기초한 가족상담은 개입의 단위를 가족관계 자체에 둬으로써 가족 내 각 하위체계의 기능향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체계론의 입장에서는 나의 행동과 맞물려 일어나는 상대의 행동이 패턴화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 가족 역기능이 일어난다고 본다. 고전적 가족상담이론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상담자가 파악하여 상담자의 처방에 따라 개입을 한다. 한편 가족상담 후기 모델에서는 하위체계 간의 관계패턴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하여 찾아나가는 방식을 취한다(정문자 외, 2018). 이 후기모델은 내담가족이 가진 상황의 특수성, 맥락성을 존중하면서 내담가족이 가진 강점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문제 해결책과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간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개입에 적용되기에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들을 병리적 모델로 사정하고 개입할 경우 이들이 가진 특수성과 맥락성, 그리고 강점 등이 무시되며, 내담자들은 자율성을 상실하고 남한 상담자가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나 '열등감'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자 입장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다 보면 이들의 삶의 경험이나 호소문제 등이 생소하고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김창대 외, 2014), 이런 측면에서도 내담자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 문제해결과 의미 찾기를 하는 해결중심치료 혹은 이야기치료 등의 후기가족상담모델은 적용가치가 높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지만, 이들이 실제로 상담을 받게 되는 주문제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김창대 외, 2014; 조영

아, 2012)은, 이들의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이 비교적 긴 회기의 전통적 상담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에, 이들을 상담으로 이끌기 위한 응급처치형의 초단기 상담개입이 필요하다. 즉, 대상자들의 가족문제를 인지한 일선 상담사들이 1-2회기 정도의 초단기 개입을 통해 당면한 가족문제의 해결방향을 탐색하면서 심화 상담에 대한 동기를 계발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개입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자와의 깊은 라포형성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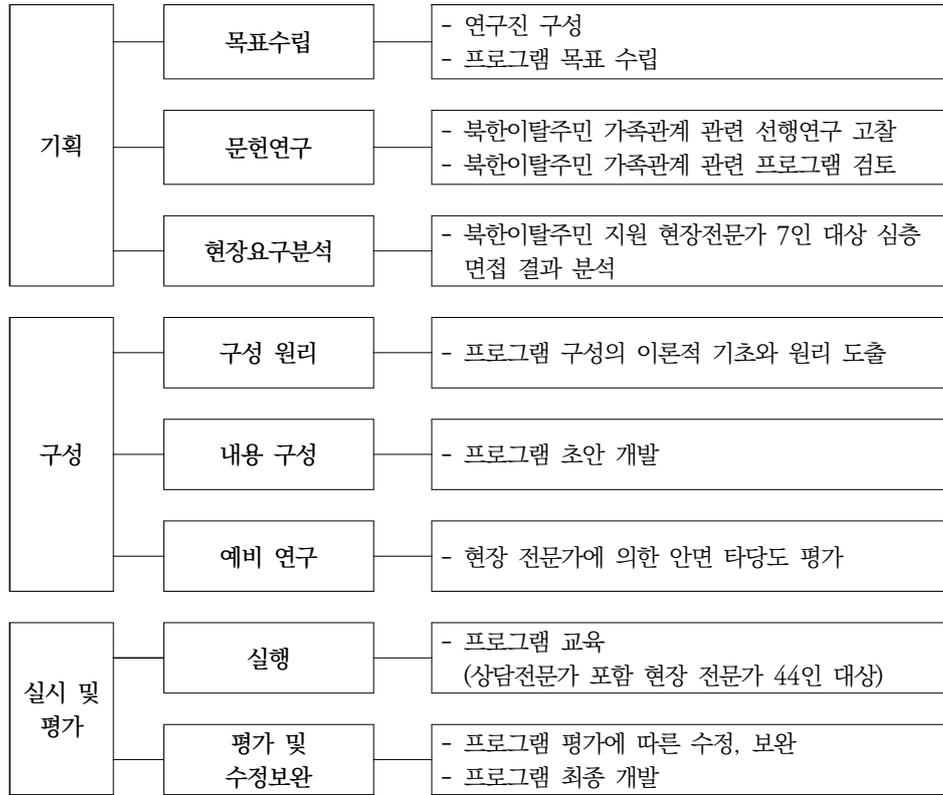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현장적용 가능성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향상 단기 프로그램을 가족상담이론의 후기모형을 적용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두 가지이며, 부부구성의 다양성, 자녀 발달단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 하위프로그램에서 약간의 변형을 두는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단기간 내에 라포형성과 개입을 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워크북을 활용한 구조화된 형태의 프로그램과 상담자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매뉴얼을 함께 개발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프로그램 개발을 주목적으로 한 본 연구는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 검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본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진은 하나원에서 탈북민 대상으로 남한에서의 가족관계 적응교육을 1년간 진행한 경험이 있는 1인과, 다문화가족 연구 및 아동상담전문가 1인, 그리고 부부 및 가족상담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각 연구자가 가진 전문성이 통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목표를 북한이탈주민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향상으로 설정한 후, 관련 선행연구와 이미 개발된 관련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전문가 7명(표1 참고)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대상 가족의 특성, 프로그램 요구도, 프로그램 관련 제언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2018년 9~10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각 면접의 소요시간은 평균 120분 정도였고, 전사된 면접내용은 연구자 3인의 회의를 통해 내용분석 되었다.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모형(김창대, 2002)과 세부 절차

<표 1>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별	지역	근무기관(유형)	근무 기간(년)	탈북 기간(년)	비고
A	여	경기	심리지원센터	8	-	비탈북민
B	여	경기	초등학교	3	10	탈북민
C	남	서울	하나센터	9	-	비탈북민
D	여	서울	사설상담센터	13	18	탈북민
E	여	서울	초등학교	8	9	탈북민
F	남	서울	대안학교	14	-	비탈북민
G	여	경기	하나센터	2개월	5	탈북민

이상의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의 분석 내용을 기초로,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와 구성원리를 정하고 내용을 구성하여 프로그램과 상담자 매뉴얼 초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과 매뉴얼 초안은 북한이탈주민 및 상담전문가 등 3인에 의해 안면 타당도를 평가받는 동시에 이들의 제안을 수렴하였다. 이후, 수렴된 제안을 반영한 수정 프로그램으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45인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에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교육 직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었다.

### Ⅲ. 연구 결과

####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결과 및 함의

관련 문헌연구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및 개입 방안에 대하여 얻게 된 핵심 내용과 그것이 프로그램 구성에 미치는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의 집단 내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74.9%가 여성이며 50.4%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배우자의 출신지역은 2016년 기준으로, 북한(41.8%), 남한(33.5%), 중국(24.1%)의 순으로 다양하다(남북하나재단, 2016). 남성의 경우 83.9%가 북한 출신 배우자와 살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42.3%가 남한출신 배우자와 살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17b). 여성들의 경우 초혼인 경우가 43.6%, 재혼 16.4%, 사실혼 16.4%, 이혼 및 별거 7.1%, 실종 및 생이별 7.1%이며, 자녀들의 연령도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가 20.5%에 달하였다(남북하나재단 2017a). 남편과 아내의 출신지역의 조합에 따라, 자녀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리고 한부모인지 재혼인지 등의 결혼 상태에 따라 가족문제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부부관계 문제는 남녀 간의 성역할태도의 차이, 문화 차이, 건강할 갈등해소 방법의 결여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부부관계의 경우 부부의 구성에 따른 다양성이 보고되는데, 남한출신 남성과 북한출신 여성이 만난 경우 언어와 민

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문화적 이질성과 적응문제, 남한 남성이 북한 여성의 욕구와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들을 순종적일 것이라고만 기대하는 등으로 인한 갈등이 부각된다(이민경, 김현경, 2007). 북한출신 남성과 남한출신 여성의 결합일 경우 역시 문화적 이질성에 더하여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가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난다(이민경, 김현경, 2007). 북한출신자들끼리의 결합은 남한 문화 및 여성 지위에 대한 적응 속도가 남녀 간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된다(윤인진 외, 2007; 이민경, 김현경, 2007). 중국인 남편과 북한출신 아내의 경우 중국에서 수단적 목적으로 했던 결혼의 역사, 중국 남편의 한국 적응 문제로 인해 집안 주도권을 여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특징적이다(김여주, 2018).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부부관계의 집단내 다양성이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자녀 측면에서는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트라우마와 상실의 경험, 학업손실, 남한사회 및 학교적응 문제, 남한부모와 비교되는 부모의 돌봄 수준 등의 문제로 높은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녀의 언어권에 따라, 트라우마 정도에 따라, 한부모의 역할과증으로 인한 피로감, 또는 남한에서 새로 맞이한 계부모와의 관계성 양상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관계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조은숙 외, 2020). 이러한 이들의 부모자녀관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 지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경험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취약점으로 작용하지만, 이들이 가진 인내심, 자율성, 의지력 등은 중요한 강점으로 부각된다(신난희, 2018).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정신건강의 취약성은 PTSD, 정체감혼란, 신체화, 우울, 대인관계 문제, 부부 및 가족갈등 등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전명희, 2020). 반면, 상담현장에서 나타난 이들의 자아이해와 성장에 대한 지향,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모습(신난희, 2018), 사선을 넘나드는 삶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이들의 자아탄력성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강점들을 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성인의 심리적응과 정신건강 향상에 초점에 둔 프로그램(강숙정 외, 2010; 김창대 외, 2014; 김창대 외, 2017; 조하나, 최연실, 2013), 탈북청소년의 정서 및 사회관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김나영 외, 2016; 김정미, 2008; 최보영 외, 2012; 한상훈, 2006 등), 자녀양육방법, 대화방법 혹은 교육정보 등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강관혜, 2008; 최대현, 이인수,

김현아, 2007; 홍승아 외, 2012) 등이 개발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의 향상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성인 개인 혹은 청소년이나 아동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극소수의 프로그램(강란혜, 2008; 최대현 외, 2007)만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개발되어 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친밀감 증진에 보다 효과적인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강란혜, 2008; 최대현 외, 2007). 가족체계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부관계 혹은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인 혹은 자녀 개인의 내면통찰과 성장 등 개인적인 접근에 비해 2인 이상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프로그램은 2인 참여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인이 참여해도 관계적인 통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서비스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현장 전문가에 대한 개별 면접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입프로그램 요구도, 서비스 전달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자세한 연구결과는 저자들의 다른 연구(조은숙 외, 2020)에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분석된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이 프로그램 개발에 미치는 함의를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장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부부유형이 결합 형태에 따라 다양하고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므로 차별화된 개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 유형은 대략적으로 북남북녀, 중남북녀, 남남북녀, 그리고 북남남녀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 각각은 문제의 속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세 가지 정도의 하위유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갈등 대처방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부간 건강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수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며, 갈등에 대해 회피, 폭력, 중독 대신 건강한 갈등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로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방법 관련 내용이 중요하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 살아온 이들의 삶의 방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도구화 하며 성을 수단화하는 양상 등이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동시에 이들의 인내심, 회복탄력성, 주도성 등이 상담에서 변화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말하였다. 일부 현장전문가들은 이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도 하였으나, 연구자들은 이 부분에서 대상자들의 생활세계와 가치관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관점을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강점을 변화에 활용하는 것이 단기적 개입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았다.

넷째, 현장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모자녀 간 갈등문제로는 불안정한 애착,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등이 대표적이었다. 탈북과정에서 자녀가 경험한 트라우마, 학업결손, 남한식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 등이 부모자녀 간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차별이 아닌 대화로 훈육하기, 부모자녀 간 건강한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서투른 학부모역할을 도울 수 있는 지식과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에서 건강한 훈육방법, 평등하고 친밀한 의사소통경험, 그리고 자녀양육관련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개입프로그램의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병행하는 방법, 남한 사람과의 통합교육을 진행하는 방법, 사례별·상황별·부부 및 부모자녀관계 유형별로 상황에 맞는 매뉴얼화 등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노출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저항이 크기 때문에 개인 혹은 개별 가족상담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연구자들은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가족상담의 프로그램 포맷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내담자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포괄성과 보편성이 있는 내용, 그리고 현장적용이 용이한 매뉴얼의 동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여섯째, 현장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상담으로 이끌어내는 것의 어려움과 상담적 개입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관심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모교육 등의 장으로 이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만성적 부부갈등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대부분의 상담요청은 생활 지원이나 아이의 교육문제 등으로 개별 문의가 온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발될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상담사 뿐 아니라 생활지원,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현장전문가들을 통해서도 프로그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쉬운 난이도의 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3.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 및 원리

#### 1)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

이상의 선행연구와 현장전문가 면접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본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가족체계론 및 후기가족상담모델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각 이론적 관점과 그러한 관점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떻게 적용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가족체계론

가족체계론은 가족원 개인의 심층적인 내면이나 정신병리 등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특정 가족문제나 개인의 사고 및 행동이 가족원 간의 상호교류의 패턴 하에서 발생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특정 가족체계가 가진 상호작용의 속성이 특정 가족원의 증상 혹은 문제행동을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족원 개개인은 그러한 가족체계의 하위체계로 기능하면서, 하위체계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가족원 개별행동들 간의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체계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사이버네틱스를 보여준다. 따라서 갈등이나 문제를 둘러싼 가족체계 전체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정문자 외, 2018: 107-134).

가족체계론을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에 적용하면, 이들의 부부관계갈등이나 부모자녀관계의 문제 등은 당사자의 병리적 내면문제나 사고방식, 행동특성 등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사자의 문제행동에 대해 다른 가족원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며, 그를 둘러싼 가족교류패턴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그 교류패턴에서 선순환을 시작시킬 수 있는 행동의 작은 변화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치료적 개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치료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오든지 가족원 중 두 사람 이상이 상담에 참여하든지 간에, 문제를 둘러싼 순환적 질문을 통해 문제관련 악순환의 고리를 파악한 후, 선순환을 일으키는 행동을 찾아나가는 방식의 관계적 접근을 하게 된다.

## (2) 강점 관점

강점 관점은 병리적 관점과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내담자가 가진 잠재능력, 재능, 자질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어려움에 봉착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관점이다. 강점 관점은 병리적인 것을 줄이는 것을 통해 내담자의 긍정적인 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병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강점에 초점을 두면서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간접적으로 내담자의 병리적 측면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고 보고 있다(권석만, 2008:27-36).

강점 관점은 내담자들이 성장 및 변화를 위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협력관계를 통해 내담자가 가진 자원을 증대시켜 새로운 자원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희망과 미래의 가능성 위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내담자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결정하는 주체로 본다. 그리고, 무력감보다는 성취감과 능력을 증대시키는 과정을 지지하며, 체계의 결함보다는 체계 간의 상호교류과정에 관심을 둔다. 또한 내담자의 강점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에너지이며 이를 지속시키는 자원이라고 전제하고 있다(김용일 외, 1995:94-96). 이러한 강점 관점을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증진 상담에 활용하면,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어려움의 원인을 병리적인 것에서 찾기 보다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자율성과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라고 보게 된다.

## (3) 해결중심상담이론

해결중심상담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답을 상담자가 아닌 내담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내담자의 문제해결능력을 유발시키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해결중심적 질문들을 통해 내담자가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에 이르도록 돕는 상담이론이다. 해결중심상담이론은 내담자의 긍정적인 측면, 강점, 자율성 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강점 관점을 수용하고 있으며, 해결방법을 가족체계의 순환과정고리 속에서 찾아낸다는 점에서 가족체계론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내담자가 문제라고 보는 것을 문제로 보는 포스티모더니즘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내담자가 자기 문제의 전문가이므로, 문제해결의 답 또한 내담자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돕는 조력자로 존재하게 된다(정문자 외, 2017:47-78).

이와 같은 해결중심상담이론의 관점을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상담에 적용할 경우, 이들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존의 실태조사결과를 상담에 선불리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당장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상담을 통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지못함의 자세’로 질문하여 내담자가 문제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내고,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내담자가 ‘원하는’ 상태로 이해하여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를 규정하게 하고, 그 문제를 둘러싼 상호작용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게 하고, 문제의 개선을 위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를 유발하고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등을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도록 하여 가족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 (4) 이야기치료이론

이야기치료는 인간이 이야기를 통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조직하고 해석하는 존재라고 보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해체, 재구성하는 것을 통해 치료를 한다. 이야기치료는 해결중심상담과 마찬가지로 후기가족상담모델로 분류되는데, 후기구조주의, 사회구성주의, 페미니즘 등의 영향을 받아 이론이 정립되었다. 이야기치료에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가득 찬 이야기’가 내담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한다. 이야기치료는 다양한 치료적 질문들을 활용하여 내담자가 간과하였던 부수적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대안적 이야기를 발견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의 긍정적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게 되고, 내담자는 이러한 긍정적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호소 문제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정문자 외, 2018:367-414).

이야기치료의 이와 같은 관점은 남한사회의 비주류이자 편견의 희생자이기도 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빛나는 이야기로 재해석함으로써, 그 이야기에 담긴 자신의 꿈, 삶의 의미, 지향성, 가치관, 강점, 잠재력 등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2)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

선행연구 및 프로그램 고찰, 그리고 현장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접결과를 기초로 연

구자들은 후기가족상담이론과 가족체계론의 기초 위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를 정하였다.

첫째,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상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본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은 부부관계 증진과 부모자녀관계 증진 등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북남북녀, 중남북녀, 남남북녀(남녀북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약간의 변형을 두고 구성한다.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자녀와 유아동기 자녀로 나뉘어 두 가지 유형을 개발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개별 상담실 상담, 가정방문상담이나 집단프로그램 모두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순차적이기 보다 회기별로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듈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

둘째, 내담자들의 바쁜 생활을 고려한 단기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든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전명희, 2020)을 고려한다면 상담회기가 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장 실무자들은 취업이나 실질적 도움 이외의 주제로 대상자들과의 상담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조은숙 외, 2018). 이에 본 프로그램은 내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용한 상담시간을 통해 심화상담을 위한 동기계발과 단기적 개입을 목표로 하는 초단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은 2회기씩의 초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각 회기는 부부 혹은 부모자녀가 함께 와서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90분, 한사람만 참여할 경우 60분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한정된 회기수를 고려하여 이들의 가족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등의 관계적인 측면과 시급한 가족갈등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다. 자살이나 가정폭력, 심각한 정신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이 있는 경우는 본 프로그램에 적절치 않아 위기상담기관에 의뢰하도록 조치한다.

셋째,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은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현장전문가도 실시할 수 있는 난이도로 구성한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족문제로 별도 상담을 받으러 오기는 쉽지 않지만 생활이나 취업관련 상담 요구는 많은 것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현장전문가들이 배워서 실시할 수 있는 쉬운 형태로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워크북을 만들어 내담자들과 함께 그 워크북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쉽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상담자 매뉴얼을 만들어 상담의 비전문가도 소정의 훈련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적으로는 부부와 부모자녀 등 2인 이상이 상담에 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남편이나 부인 중 1인, 혹은 부모나 자녀 중 1인이 상담

에 오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다.

넷째,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은 내담자의 병리적 측면의 개선보다는 내담자의 자율성, 강점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 개발한다. 즉, 내담자의 정신병리나 문제를 문제로 보는 관점보다는 가족체계론의 관점, 강점 관점, 해결중심과 이야기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구체적인 문제 사안별로 다루기보다는 문제해결적 상호작용 능력을 증진시키며 내담자의 긍정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가족체계론의 관점을 활용하여 체계의 상호작용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문제의 원인보다는 해결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고 그 해결은 내담자가 가진 강점에서 나온다는 입장으로 접근하며, 내담자의 자발성, 동기,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두면서 문제해결을 해나간다. 이야기치료의 관점을 통해 고난이 많은 북한이탈주민 부부 및 부모자녀의 삶에서의 의미와 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의 자존감과 역량강화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 4. 프로그램 구성 및 예비연구

이러한 구성원리에 기초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상담자 매뉴얼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1차 검토를 하는 예비연구가 이루어졌다.

##### 1)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당초 연구팀은 선행연구 및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부부유형별로 다루어야 할 주요내용을 추출하고 이 내용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표2 참고). 그러나 프로그램은 후기가족상담이론의 원리에 따라 문제를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아닌 내담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표2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모두 프로그램 내용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워크북의 세부내용과 문장표현 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반 남한사람 대상의 프로그램과 다른 변형을 취하였다(표 6 참고).

〈표 2〉 각 유형별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제안

부부 유형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거나 나타날 수 있는 내용
북남북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역할, 가사분담, 지위와 권력의 변화로 인한 갈등: 이 부분에 대해 아내가 배려해줬으면 하는 것과 최근에 가장 힘들거나 불쾌했던 일에 대한 공유와 해결방안 찾기</li> <li>-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이 부분의 갈등에 대한 대화, 재정 분담 불가능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대화</li> <li>-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 표현하기</li> </ul>
중남북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인 남편의 역량강화: 장점 찾기, 역할부여하기, 남편의 생활상 애로점 대화, 문화적응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외부공적 자원 활용 등)</li> <li>- 부부간 균형맞추기: 상호간에 도움요청하기, 역할분담, 함께함의 장점찾기, 감사하기</li> </ul>
남남북녀/ 북남남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이질성으로 인한 갈등: 언어표현법, 행동양식 등 문화차이 갈등에 대한 대화, 성역할, 부부위계 등 관련 대화, 건강한 해결책 찾기위한 대화</li> <li>- 관계역량강화: 결혼의 의미, 폭력행동, 원가족과의 관계</li> </ul>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은 총 2회기로 구성된다. 1회기는 해결중심상담을 적용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문제에 대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흐름으로 구성되어있다. 2회기는 많은 고난의 경험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생경험을 통해 그들의 강점과 삶의 의미, 지향점 등을 찾아 긍정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야기치료의 대화방법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북남북녀용 프로그램(A형)을 기초로, 중남북녀(B형), 남남북녀 및 남녀북남(C형) 등을 위한 2개의 변형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표 3 참고).

〈표 3〉 북한이탈주민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A형:북남북녀용) 개요

회기	회기목표	개입내용/활동	B/C형 혹은 개인내담자일 때의 변형	워크북에서의 주안점	기대효과
1	- 부부의 현안문제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 문제해결방안 모색 - 의사소통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열기활동: 상대 배우자의 고마운 점, 미안한 점, 바라는 점 3가지씩 말하기</li> </ul>	개인내담자: 배우자에 대한 것을 적고 상담자와 이야기	마음을 열 수 있는 유도문, 그림을 제일 앞에 삽입	상담을 시작하면서 서로의 언 마음을 녹이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안문제 이해하기: 각자 현재 가장 힘든 일과 힘든 정도를 척도질문으로 답하고 그 때의 감정 말하기</li> </ul>	- C형: 해결가능한 문제와 수용해야할 문제로 구분해서 보게 함 - 워크북에 제시한 현안문제 선택안을 ABC형에 따라 다르게 기술함	감정단어 선택안 제시, 현안문제에 대한 선택안을 박스로 제시하여 자기노출이 용이하도록 유도함	상대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 때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됨 C형: 문화차이, 경험차이로 인해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해결방안 모색: 문제관련 상황이 1점 좋아지도록 하기 위한 자신과 배우자의 작은 행동 변화 찾기</li> </ul>		척도를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제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 연습: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에게 하는 요청사항을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며 의사소통하기</li> </ul>	개인내담자: 배우자에게 편지형식으로 할 말 적어 상담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연습함	대화의 예문과 방법을 박스로 자세하게 기술하여 보고 따라할 수 있게 함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연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를 위한 실천 결심을 척도 점수로 표현하고 장애물 넘기 위한 방안 생각하기</li> <li>• 오늘 느낀 점 나누기</li> </ul>	개인내담자: 위에서 적은 편지를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잠시 이야기 나누게 함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재정의하는 마침문을 삽입	실천을 위한 초석 다지기

회기	회기목표	개입내용/활동	B/C형 혹은 개인내담자일 때의 변형	워크북에서의 주안점	기대효과
2	- 지난 회기 이후 일어난 변화에 대한 확대 강화 - 자기 삶의 꿈과 의미 자신의 긍정적 정체성 찾기 - 자신과 상대방의 강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감상: '흔들리며 피는 꽃' 시 감상 후 소감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이야기 나누기</li> </ul>	B형: 서로 손바닥을 맞대고 눈을 바라보면서 2분간 말 없이 조용히 있게 하여 상대를 느끼게 함		시 혹은 신체적 접촉을 통한 부부 간 마음을 여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화에 대한 확대, 강화: 부부관계에 일어난 작은 변화를 인식하고 그 변화를 위해 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찾아보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li> </ul>		문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해결 중심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함	작은 변화를 확대, 강화하여 지속적인 체계의 변화로 유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생곡선'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생곡선을 그린다.</li> <li>- 힘들었던 일 3가지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을 찾아본다.</li> <li>- 행복했던 일 3가지와 그것이 왜 행복했는지를 서로에게 이야기한다.</li> </ul> </li> </ul>	C형: 결혼생활 중 행복했던 일 3가지와 그 이유를 말하고, 작지만 실천 가능한 행복증진 활동 생각하기		힘들었던 일을 통해 그것을 극복한 자신의 강점을 알게 됨, 행복했던 일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와 지향성, 구체적 실천방안을 알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부부 70대 생각해보기: 미래에 바라는 부부상을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본다.</li> </ul>	C형: 나와 배우자의 장점 찾기와 활동에서 느낀 점 나누기	C형: 다양한 장점의 목록을 예시 박스로 제시함, 대화방법 구체적 예시	바라는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노력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봄/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시각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심하기: 서로에게 약속 선언하기 (의사소통 연습), 상담사와 함께 기념촬영 하기, 필요시 추가 상담서비스 안내</li> </ul>		약속 나누는 의사소통 방법을 박스에 구체적으로 제시	작은 결심에 대한 실천 대화형식으로 다짐함

## 2)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프로그램(A형)과 유아동기 자녀와 부모프로그램(B형)을 개발하였다(표 4, 표 5 참고). 각 유형별로 2회기씩 제작되었으며, 역시 부모자녀가 함께 오는 경우와 모(혹은 부)만 오는 경우를 다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특히 유아동기 자녀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자녀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놀이 및 미술활동이나 게임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전반적으로는 후기가 족상담이론의 틀을 가지고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으나,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양육과 관련된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다고 보고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과 직면하는 문제, 발달단계별 부모자녀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 등 교육적 내용의 전달을 위해 워크북 안에 '글상자'를 삽입하였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대안적 양육방법을 찾는 작업 등에서 일방적인 교육이나 정답제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표 6 참고). 또한 자녀를 문제해결의 동반자로 초대하여 함께 양육 및 훈육방법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여, 자녀와의 협력적 관계경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표 4〉 북한이탈주민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A형:청소년자녀용) 개요

회기	회기목표	개입내용/활동	워크북에서의 주안점	기대효과
1	- 갈등문제를 둘러싼 해결지향적 상호작용 증진 - 부모자녀 간 상호이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열기: 서로에게 고마운 점, 미안한 점, 바라는 점 3가지씩 말하기</li> </ul>	마음을 열 수 있는 유도문, 그림을 제일 앞에 삽입	상담을 시작하면서 서로의 언 마음을 녹이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안문제 파악하기: 현재 갈등문제, 억울한 점, 중요한 것에 대해 서로 기자가 되어 인터뷰 하여 표 채워 넣기</li> <li>• 현재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문제발생시 가족상호작용의 변화상태와 어려움의 정도(척도표시) 및 상대가 느낄 감정을 추측해보기</li> </ul>	문제해결적 대화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 질문 제시	상대가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해결방안모색: 문제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찾기</li> <li>• 그 행동이 만들어낼 변화의 순환고리 생각하기</li> <li>• 행동실천을 위한 지지체계 마련하기</li> </ul>	부모워크북에는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자녀워크북에는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예시를 박스로 제시하여 읽고 상호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함	변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과 그 결과를 알고 실천을 위한 지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직한 대안행동 의논하기: 부모자녀가 의논하여 자주 발생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록해보기</li> </ul>	자주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상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대안을 찾도록 구성 대안행동에 대한 예시를 박스로 제시하여 참고하게 함	청소년자녀와 부모가 “협력하여” 더 나은 의사소통 방식을 찾아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심다지기: 오늘 느낀 점, 결심에 대해 나누기</li> </ul>		나눔을 통해 실천 결심을 다짐

회기	회기목표	개입내용/활동	워크북에서의 주안점	기대효과
2	- 해결지향적 상호작용의 확대와 강화 - 부모자녀 개인의 자존감 향상과 역량 강화 - 부모자녀간 심화된 상호이해와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열기: 부모자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시를 같이 읽고 느낌 나누기</li> </ul>		시를 통해 서로 마음이 부드러워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에 대한 확대와 강화: 부모자녀관계에 일어난 작은 변화를 인식하기</li> <li>• 그 변화를 위해 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찾아보고 유지하기</li> </ul>	해결중심적 대화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 질문 제시	작은 변화를 확대, 강화하여 지속적인 체계 변화 유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의 이야기 재구성: 인생 곡선 그리기, 힘들었던 일 3가지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 찾아보기, 행복했던 일 3가지와 그것이 왜 행복했는지를 서로에게 이야기하기</li> <li>• 20년 후의 삶을 그려보며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적용하기</li> </ul>	이야기치료의 대화기법을 워크북에 구체적인 질문으로 풀어서 제시함	힘들었던 일을 통해 그것을 극복한 자신의 강점 알게 됨 행복했던 일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와 지향성을 알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의 강점 말해주기: 부모자녀가 서로에게 각자의 강점에 대해 말해주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기</li> </ul>	서로에게 강점을 말해주며 대화하는 방법과 예시를 박스 안에 자세히 제시함	서로 그리고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의 결심 나누기: 서로의 느낀 점과 결심 나누기, 상담사와 함께 기념촬영하기, 필요시 추가 상담서비스 안내</li> </ul>		작은 결심에 대한 실천을 다짐함

〈표 5〉 북한이탈주민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B형: 유아동기 자녀용) 개요

회기	회기목표	개입내용/활동	워크북에서의 주안점	기대효과
1	- 부모자녀 간 상호이해와 친밀감 증진 - 대안적인 건강한 양육방식 찾아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바닥으로 놀아요.”: 서로의 손바닥 그려주기, 손바닥을 마주 대고 눈을 마주친 채로 30초간 유지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접촉 활동을 통한 친밀감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타할아버지가 오신다면”: 산타가 오면 어떤 선물을 왜 받고 싶은지 골라보고 서로 이야기하기</li> </ul>	산타그림과 커다란 주머니, 선물의 다양한 예시(마음의 평화, 공부잘 하는 아들, 엄마 웃는 얼굴, 돈 등) 구체적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와 자녀 각자의 필요와 원하는 것에 대해 상호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랑고백”: 자녀가 어떻게 할 때 부모는 사랑스럽거나 마음이 아픈지/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녀는 행복하거나 힘든지 감정표현하고 소통하기</li> </ul>	감정과 행동이 구체화되도록 빈칸 처리하여 항목별로 제시 (“엄마는 OO이가 ~할 때 자랑스러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자녀 서로에게 상황별 감정 표현을 통해 상호이해와 친밀감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엄마(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자주 닦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적 양육행동을 부모자녀가 함께 찾아보기</li> </ul>	부모자녀가 의논하여 대안을 워크북에 적어보도록,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과 빈칸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 상황에 대한 부모자녀 간 합의된 대안적 양육행동을 찾아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 마음 말하기”: 새로운 결심을 나누며 마무리</li> </ul>	부모교육이 필요한 내용들을 워크북 2면을 할애하여 자습용 교육자료로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천을 다짐함</li> </ul>

회기	회기목표	개입내용/활동	워크북에서의 주안점	기대효과
2	- 부모자녀 간 친밀감 증진 - 의사소통 증진 - 부모자녀 서로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 관점 증진	• “오늘 나의 기분은?": 오늘 나의 기분이 어떠한지 그림 속 표정을 고른 후 이야기하기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그림을 제시하고 선택해보게 함	• 자녀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인식하고 부모와 소통함
		• “잘 말하고 잘 들어보세요.”: 간단한 의사소통 원리를 적용한 말하고 듣기 연습	구체적인 말하기와 반응하는 방법을 예시로 제공하여 참고하게 함	• 부모자녀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연습과 소통을 하게 됨
		• “손바닥으로 놀아요.”: ‘손바닥 거울놀이’를 하며 신체접촉 후 소감을 나눔		• 놀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 친밀감 증진
		• “이야기를 그려 보세요”: 자녀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20년 뒤 모습을 그린 후 칭찬의 글 쓰고, 각자 그림을 설명하면서 칭찬 읽어주기		• 미래 가족과 자신의 모습에 대한 희망 증진, 자녀의 장점에 집중하고 소통함
		• “내 마음 말하기”: 새로운 결심과 마무리	부모교육이 필요한 내용들을 부모용 워크북 1면을 할애하여 자습용 교육자료로 제공함	• 실천을 다짐함

〈표 6〉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특수성에 맞춘 프로그램 (워크북) 내용 변형 예시

대상자들의 특수성	프로그램 워크북에서의 세부 적용
마음열기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문과 마침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타당화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문장 사용 (“삶의 어려움이 많지만”, “부부관계란 인생의 거센 바다를 함께 항해하는 운명의 동지관계”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재미있는 놀이활동을 해볼 것이다” 등)</li> </ul> </li> <li>• 삶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흔들리며 피는 꽃’(도중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정채봉))을 도입부에서 활용</li> <li>• 중남북녀 부부프로그램의 경우 언어 제한 고려하여 도입부에서 부부간 ‘손바닥 마주하고 체온 느끼기’ 활동 활용</li> </ul>
독특한 갈등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의 타당화, 보편화를 위해 부부관계 갈등문제를 예시 박스로 제시: “남편이 돈을 잘 벌지 못해서 갈등이 된다” “상대를 무시하고 폭언이나 폭행을 한다”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아서 아내가 불만이다” 등</li> <li>• 문제의 타당화, 보편화를 위해 부모자녀관계 갈등문제 예시 박스로 제시: “탈북과정에서 떨어져 있었던 시간 때문에 부모에게 친근감을 느끼기 힘들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 힘들다” “부모의 말이 거칠고 심지어 폭력이 있어서 힘들다” “부모의 기대로 인해 심한 부담감과 죄책감이 든다” 등</li> </ul>
병리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적 이야기’에 감춰져있던 대상자들의 독특한 강점을 탐색할 수 있게 함: 강점의 예시를 제시하여 탐색 용이하게 함 (예. “2가지 언어를 쓸 수 있다” “추위를 잘 안탄다” “청소를 잘한다”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등)</li> </ul>
해결 불가능한 문제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많음을 언급하면서, 갈등문제를 해결가능한 것과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 수용을 포함한 자율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li> </ul>
상담에 대한 낯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 욕구 등을 탐색하는 상담방법에 대한 낯설음을 고려하여 예시 선택 안들을 제시하여 탐색과 자기노출이 용이하도록 유도함</li> <li>• 대화방식의 문화차이를 고려하여, ‘잘 못한다’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 대화 연습을 위한 완전 문장을 제시하고 상담자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함</li> </ul>
양육방식의 문화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양육방식에 맞추라고 하기 보다는 그 가족 나름의 더 나은 양육방식을 찾아나가도록 자녀와 함께 대화하여 찾게함 (일방적이기보다는 협력적 모델 추구)</li> <li>• 부모워크북에 자녀발달단계 관련 특성, 대화방법, 훈육 등에 대한 교육적 자료들을 참고자료로 제시</li> </ul>
고난 많은 인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생곡선작업을 회기의 중심에 놓음: 이를 통해 정체성 재구조화, 미래지향성(삶의 의미 추구) 도모</li> <li>• 이렇게 찾은 삶의 의미를 대화연습과 결합시킴: “당신과 나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고단하고 아팠지요. 우리 남은 삶은 ____살기 위해 내가 ____노력할게요 (후략)”</li> </ul>

### 3) 상담자 매뉴얼

본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심리상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자 매뉴얼을 상세히 준비하였다. 매뉴얼에는 각 프로그램의 목표, 구성 의도, 활용 방법, 회기별 내용의 개요, 상담자가 취해야 할 관점, 진행요령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 서두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나열한 후, 각 항목의 진행을 위해 알아야 하는 내용을 박스 형태로 삽입하여 각 개입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왔는데,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의 각 항목의 활동이 의도하는 효과, 의미, 진행요령 등을 소요시간 등과 더불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표 7 참조).

〈표 7〉 상담자 매뉴얼의 항목 및 내용구성 의도

항 목	내용구성 의도
프로그램 안내	이 부분은 각 프로그램별 매뉴얼의 첫 페이지로 전체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여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실시장소, 회기구성 등에 대하여 상담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활용방법	각 회기 프로그램의 내용개요와 진행요령, 상담자의 관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부진행 요령	이상의 개요 설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별 진행요령을 설명하는 섹션으로 넘어간다.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원래 내용은 작은 글씨로 삽입하여, 상담자가 매뉴얼만 보아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원안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활동별 안내	각 활동이 어떤 의도로 기획되었는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예상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4) 예비연구

프로그램의 1차 개발이 이루어진 후, 프로그램 내용과 워크북, 그리고 상담자 매뉴얼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2인과 북한이탈주민이면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학박사인 전문가 1인의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검토할 자료들을 이메일로 송부 한 후, 전화 통화 혹은 대면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전문가 1인은 구체적인 피드백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드백 내용은 1)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만든 프로그램 같다, 2) 너무 단기프로그램이라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3) 북한이탈주민을 상담실로 데리고 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4) 워크북의 언어표현이 부적절한 부분들은 수정이 필요하다, 5) 한국어가 서투른 내담자 (중국인 남편, 중국에서 최근 입국한 자녀 등)를 위하여 워크북의 중국어번역이 필요하다 등이었다. 연구진들은 이 피드백 중 4)와 5)의 내용은 100% 수용하여 프로그램 수정, 보완에 반영하였으며, 2)~3)에 해당하는 피드백은 프로그램 자체의 한계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번역업체를 통해 중국어로 번역된 워크북은 가족상담전문인 중국인 석사과정생을 통해 역번역 하는 재검토과정을 거쳐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 5. 프로그램 교육 및 프로그램 평가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을 마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45명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육 이후 이들 상담사들에 의해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졌다. 교육은 2019년 12월 중에 남북하나재단이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연수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개요와 특징, 그리고 각 프로그램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주안점은 무엇이며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교육이 강의 및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교육 직후에 참가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프로그램의 원리가 잘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에 참가한 상담사들은 42명(93%)이 여성이었고, 상담관련 석사학위 혹은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14명(31%),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상담 비전공자가 31명 (69%)이었다. 현장근무경력은 5년 이상이 4명(8.9%), 3년 이상 5년 미만이 11명(24.5%), 1년 이상 3년 미만이 20명(44.5%), 1년 미만이 10명 (22.2%)였다. 근무하는 지역은 전국의 하나센터와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등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평가 결과, 프로그램은 '현장전문가들을 통해 전달 가능한 난이도'이며 자신이 '실제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겠다'는 의견에 있어서 평균 4.1~4.4점을 나타내, 프로그램이 현장전문가들을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개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내담자의 다양성, 현실적 여건의 반영, 실제적인 효과 등에 있어서는 이보다 낮은 평균 3.6~3.9점을 나타내고 있어, 본 개입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여

건과 눈높이에 맞추어 실제로 기대하는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8 참고).

한편, 상담사들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총평부터 프로그램에서 특히 도움이 되는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표9 참고). 상담사들은 프로그램의 이론적, 구조적, 체계적, 구체적, 실용적인 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서 신체활동, 인터뷰하기, 미술작업 등의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부부와 부모자녀 프로그램 모두에서 회기 중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프로그램 전개방식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반면, 단기프로그램의 제한적 효과에 대한 지적, 워크북 활용이 편하지 못한 내담자, 비자발적 내담자 등에 대한 대안 필요성, 현장 활용을 위한 추가적 교육 자료의 필요성 등의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예비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현장의 현실에서 상담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음이 다시 언급되었다.

〈표 8〉 프로그램의 원리 실현 정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들의 평가

평가 문항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M/SD)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M/SD)
1. 본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부부구성/자녀들의 발달단계의 다양성이 고려되었다.	3.9(.80)	3.8(.70)
2. 단기(2회기) 개입 부부/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설계되었다.	3.6(.77)	3.9(.59)
3. 부부/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현장전문가가 교육을 받으면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이다.	4.1(.60)	4.1(.64)
4. 부부/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대상 부부/부모자녀의 문제보다는 강점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4.2(.65)	4.2(.69)
5. 부부/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부부/부모자녀관계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8(.76)	4.0(.53)
6. 이 프로그램은 4시간 정도 훈련을 받으면 혼자서 부부/부모자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4.2(.66)	4.3(.73)
7.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활용할 생각이다.	4.4(.62)	4.1(.91)

〈표 9〉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들의 피드백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증진 프로그램
주관적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동거자 포함)를 불러 들이는 것, 내담자 마음 여는 것이 과제(8)*</li> <li>-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적합하다(5)</li> <li>- 워크북, 매뉴얼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현장 적용 가능(5)</li> <li>- 소통불능 상황이라 2회기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3)</li> <li>- 심각성에 따른 실제적 구체적 내용 필요, 중남북녀 적용 어려움(3)</li> <li>- 강점 접근, 문제해결적 구성 좋음(3)</li> <li>- 구체적 세부적으로 잘 준비됨(2)</li> <li>- 대상자 다양성 고려됨(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개선에 도움(9)</li> <li>- 도움이 됨, 매우 좋음(3)</li> <li>- 활동이 추가, 다양화되면 좋겠음(3)</li> <li>- 좋음 (자녀발달단계 따른 다양화, 긍정적 접근 좋음)(2)</li> <li>- 구조화되어 쉽고 편하게 활용 가능(2)</li> <li>- 초등저학년 프로그램 별도 필요(1)</li> <li>- 다양한 워크시트지 필요(1)</li> <li>- 자녀 출생지역 따른 사전작업 필요(1)</li> <li>- 새로운 놀이, 활동 적용이 좋음(1)</li> <li>- 익숙한 내용임(1)</li> </ul>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이해 증진(새로운 통찰, 표현 못했던 감정이해, 관계재발견)(9)</li> <li>- 의사소통의 기회제공, 대화연습(7)</li> <li>- 문제해결력, 갈등해결력 증진(4)</li> <li>- 워크북있어 접근 용이(2)</li> <li>- 내용은 좋지만, 상담실에 오지 않는 경우 효과 제한적(2)</li> <li>- 기타: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몫' '작은 노력' 개념, 강점찾기와 사고전환, 부부상담을 위한 동기마련, 상담에 익숙치 않은 내담자에게 쉬운 접근, 체계적, 구조화 검증된 내용, 충분한 라포형성 후라면 효과적, 개인성장에 도움, 관계개선에는 도움 안됨, 참여 순간 감정으로 끝나기 쉬움(각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개선, 자녀 이해 도움 (7)</li> <li>- 자녀와의 소통, 대화기회 제공(4)</li> <li>- 신체접촉을 통한 친밀감 형성(2)</li> <li>- 단기적으로는 유용, 장기적 양육태도 등 추가 상담필요(3)</li> <li>- 긍정적 양육방법 탐색(1)</li> <li>- 다양한 활동 좋음, 그러나 개입 어려움(1)</li> <li>-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인 점(1)</li> <li>- 구체적 내용이 좋음(1)</li> </ul>
개선이 필요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극, 시연 프로그램(동영상 등) 필요(2)</li> <li>- 회수를 좀 더 추가해도 좋을 듯(2)</li> <li>- 폭력위기 개입 보강(2)</li> <li>- 워크북에 쓰는 것 싫어하는 내담자 위한 대체방안 마련 필요(2)</li> <li>- 기타: 1박2일 부부집단프로그램형식이 효과적임, 감정문기, 인생곡선 등의 활동은 침습이 일어나 진행 어려울 것 같음, 급한 불끄기 수준임, 놀이나 매체 활용 추가, 자존감 향상 후 해결중심 상담 들어가도록, 다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실제 상담 후 의견 반영 필요, 좀 더 긴 연수가 있어야 할 듯 (각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양육법 교육 포함될 필요(1)</li> <li>- 글쓰기 싫어하는 내담자 대안필요(1)</li> <li>- 다양한 유형의 부모자녀관계에 적용할 수 있게 바꾸어야할 필요(1)</li> <li>- 긍정적 질문만 삽입되어 제한적(1)</li> <li>- 비자발적 청소년내담자 마음열기 작업 추가 필요(1)</li> <li>- 북한이탈주민에 '특수한' 관점이 있는지 모르겠음(1)</li> <li>- 중국출신 자녀에게는 어려울 듯(1)</li> <li>- 예화 삽입 등으로 워크북 보완 필요(1)</li> <li>- 부정적인 부-자녀관계에 대한 대비책 등 보완 필요(1)</li> <li>- 상담사의 현장업무 고충으로 인해 상담 어려움(1)</li> <li>- 상담사 교육이 더 필요(1)</li> </ul>

\* 유사내용 응답자의 수, 무응답인 경우는 제외됨

## 6. 수정보완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들의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및 워크북에 대한 최종 수정을 하였다. 수정은 회기의 추가나 상담 포맷 자체를 바꾸는 부분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웠고, 동영상자료 및 매뉴얼 활용을 위한 추가자료 제공 부분은 추후 상담사 교육 시 자료를 추가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워크북이나 매뉴얼 내용에서 양육기술 관련 참고자료내용, 쓰기 싫어하는 내담자를 위한 대안적 방법의 제시, 예화 삽입, 비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대응방법, 침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대한 진행요령 매뉴얼 보강, 폭력위기에 대한 개입내용 등은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었다.

## IV. 논의 및 결론

### 1. 연구의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초단기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상담전문가들을 통한 평가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워크북, 그리고 상담자 매뉴얼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장전문가들이 이들의 생활 및 직업관련 상담을 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이들의 가족관계 문제에 기초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에 할애할 시간부족과 동기부족으로 상담적 도움을 받기 힘든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현장성 있는 개입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그램은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기관이나 현장전문가 (지역 하나센터,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의 통일전담교사, 대안학교 교사, 기타 북한이탈주민 대상 상담기관 등)에 의해 직접 활용이 가능하다. 본 프로그램은 숙련된 상담전문가의 경우 매뉴얼의 숙독을 통하여 프로그램 진행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었으나, 상담에 대한 선지식과 기술훈련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뉴얼을 통해 습득하는 내용에 뚜렷한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 후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프로그램은 부부가족상담의 기본원리인 가족체계론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훈련프로그램은 가급적 부부가족상담전문가로서 대학의 전임교원에 준하는 교육능력을 갖춘 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교육은 상담사례 발표와 슈퍼비전, 상담사들의 질의, 응답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연구의 의의

본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초단기 개입프로그램으로서의 실용성 뿐 아니라, 후기가족상담이론과 강점 관점을 적용한 개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팀은 남한 사람들의 가족관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가족관계의 역사와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개입을 위해서는 후기가족상담의 이론적 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전문상담사들로부터 적절한 접근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프로그램의 현장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내담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였고, 구체화되고 구조화된 워크북의 개발과 매뉴얼의 개발 등을 병행하였다. 일부 워크북의 중국어 번역, 부모자녀프로그램에서의 다양한 활동 개발 등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해 추가하게 된 작업이었다. 검토자들의 피드백과 평가, 그리고 내담자의 필요에 부응하여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화시켜 나온 것이 프로그램의 현장적용력을 높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프로그램은 후기가족상담이론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에서 문제와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담고있지 않다. 오히려 프로그램은 내담자의 사고 흐름을 잡아주는 틀이 되고 문제와 해결책은 상담자의 조력 하에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내용에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내용이 담겼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보편성과 포괄성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적인 문제를 짚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될 수 있으나, 내담가족마다 다를 수 있는 가족생활문제를 선입견 없이 다룰 수 있는 좋은 상담적 틀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구체성 보다는 포괄성과 방향성에 보다 주력하였다.

연구기간의 제한성과 자원하는 내담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점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현장에 직접 적용시켜보지 못한 것은 실제적용을 통한 모델검증이라는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요소를 결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한 한계로 남는다. 향후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실무자들이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활용해 본 피드백을 수렴하여 본 프로그램을 보다 완성도 있는 개입프로그램으로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이렇게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험설계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일 또한 향후 과제로 남긴다.

## ■ 참고문헌

- 권석만. 2008. 『긍정심리와 행복탐구』. 학지사.
- 강란혜. 2008. “탈북아동과 부모를 위한 남한사회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프로그램 효과.”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7(1): 173-193.
- 강숙정, 이재창, 이장호. 2010. “새터민 심리적응을 위한 셀프파워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73-706.
- 김나영, 이정민, 정미지. 2016. “탈북청소년의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통합적 예술치료 체험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2(5): 17-32.
- 김여주. 2018.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가족 이산 및 재구성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일, 조홍식, 김연옥. 1995. 『사회사업 실천론』. 나남 출판사.
- 김정미. 2008. “아동중심 미술치료를 통한 새터민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수행향상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5(2): 275-294.
- 김창대. 2002.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청소년집단상담의 운영』. 한국청소년상담원, pp. 75-108.
- 김창대, 김동민, 최한나, 김은하, 조수연. 2014.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서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결과 보고서』. 남북하나재단.
- 김창대, 김은하, 조수연. 2017.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심리정서 집단상담 프로그램(매뉴얼)』. 남북하나재단.
- 김현아, 정성란. 2008. “새터민의 가족상담 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9(3): 1333-1356.
- 김현아, 조영아, 김요완. 2012. 『북한이탈주민 가족유형 분석 및 지원방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연구총서 2012-04).
- 남북하나재단. 2017a.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 남북하나재단. 2017b.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남북하나재단. 2018. 『2017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 박정란, 강동완. 2011. “탈북여성 결혼의 젠더구조와 문화적응 고찰: 정체성, 경제, 건강수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39-63.
- 신난희. 2018.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다문화와 평화』 12(1): 207-235.
- 윤인진, 박영희, 윤여성, 장혜경, 임인숙. (2007).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

- 관계의 변화. 『한국가족복지학』 12(2): 89-108.
- 이기영, 성향숙. 2001.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탈북자 가구주 및 그 배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7(1): 243-271.
- 이민영, 김현경. 2007.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 체험-남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525-554.
- 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09.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7.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 3.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명희. (2020). “탈북민가족.” 권수영 외 12인. 『한국인을 위한 부부가족상담 핸드북』. 학지사.
- 정문자, 이영분, 임유순, 김은영. 2017. 『해결중심 가족상담』. 학지사.
-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18. 『가족치료의 이해(3판)』. 학지사.
- 조영아. 2012.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97-222.
- 조은숙, 김민경, 김소영, 권혜영. 2018.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조은숙, 김소영, 김민경. 2020. “현장전문가가 지각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특성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4), 175-198.
- 조하나, 최연실. 2013.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가족상실로 인한 우울감 및 죄책감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2): 1327-1345.
- 최대현, 이인수, 김현아. 2007. “새터민 아동, 청소년의 적응력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6(2): 277-291.
- 최보영, 김현아, 최연우. 2012. 『북한이탈청소년대상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대인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상훈. 2006. “집단체험학습적응프로그램을 통한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연구교사 논문(미간행).
- 홍승아, 김소영, 박정란. 2012.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 강화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01. 15. 접수, 2020. 02. 27. 심사, 2020. 03. 25. 채택)

## Abstract

### Development of Brief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s' Family Relationship Enhancement

*Eunsuk Cho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Minkyong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Soyoung Kim (Department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Hyeyoung Kwon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gram for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To this end, researchers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the problems of their family life, intervention programs, and the voices of field exper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principles of the program were set up, including consideration of the diversity of the subjects, short-term programs tailored to the client's life style, easy-to-learn level for the field experts to deliver, and focus on the strengths and capacity building of the subjects. This principles fit well with the philosophy and strategies of the post-modern family therapy models. Therefore, this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the theory of solution-focused therapy and narrative therapy. After developing a initial program (for couple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each) and counselor manuals, they went through a revision process by collecting feedback from three North Korean refugees and field experts. Then, 44 counselors serving North Korean refugees were trained with the revised program. Afterwards, the program was evaluated by the counselors. The final program was developed by supplementing the contents according to the counselors' feedback. Participant counselors appreciated the program's applicability and short-term possible effects, but pointed the need for strategy of bringing North Korean refugees into the program. The effectiveness study of the program is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family relationship, program development